

이청준 소설에 나타나는 배앓이의 의미 연구*

- <퇴원>과 <귀향연습>을 중심으로

김 은 정**

차 례

- | | |
|----------------------|-------------------------|
| 1. 들어가며 | 3. 거짓된 말과 '배앓이'- <귀향연습> |
| 2. 은폐된 말과 '배앓이'-<퇴원> | 4. 나가며 |

국문초록

본고는 기존 논의에서 이청준의 소설에 나타나는 '배앓이'를 '허기'의 의미로 파악한 것에 대하여 재고의 관점에서 논의를 시작했다. 이청준의 <퇴원>, <귀향연습>의 중요한 모티프인 배앓이는 허기에 대한 트라우마로서의 배앓이가 아니다.

<퇴원>은 이청준 작품 중 배앓이가 가장 먼저 등장한 작품이며, <귀향연습>은 가장 마지막으로 등장한 작품이다. 이 두 작품에서 배앓이의 원인이 되고 숨은 의미가 되는 것은 <퇴원>에서는 은폐된 말, <귀향연습>에서는 거짓된 말이다. 그리고 그 말들은 성적 욕망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런 점에서 이 두 작품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도 맥이 닿아 있다.

* 이 논문은 2014년 경남대학교 신진교수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경남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퇴원>과 <귀향연습>의 두 작품은 상당히 유사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두 작품의 배경이 되는 <퇴원>의 병원과 <귀향연습>의 과수원, ‘준’과 ‘기태’라는 인물, 주인공의 이야기를 들어 주는 존재인 ‘미스 윤’과 ‘훈’의 성격 등에서 특히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 또한 <퇴원>, <귀향연습> 두 작품 모두 ‘어머니’에 대한 고착에서 벗어나지 못한 신경증적 증상을 보인다는 점에서도 유사하다.

본고는 이청준 작품에서 진실을 숨겨야 할 경우나 거짓으로 말해야 할 때 죄책감의 형태로 심인성 배앓이가 발생한다는 점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이청준이 그의 작품에서 일관되게 추구해 온 가치는 바로 ‘정직한 말’로 대변되는 삶의 진실성이며, 이는 바로 배앓이의 형태로 표상되고 있다.

주제어 : 배앓이, 은폐된 말, 거짓된 말,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죄책감, 심인성 질병

1. 들어가며

이청준은 1965년 <퇴원>으로 문단에 등장하면서 2008년 작고할 때까지 40여 년 간 한국의 근대적 삶의 모습을 다양한 접근 방식으로 조명해냈다. 그는 다양한 소재와 주제를 다룬 작품들에서 익숙한 현실을 낯설게 보여줌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감추어진 세계를 끊임없이 환기시키고자’¹⁾하였다.

이러한 환기의 방식으로 1960~70년대에 발표된 그의 작품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공포와 증상을 호소하는 인물들이 빈번히 등장한다.²⁾ 특

1) 김치수, 「언어와 현실의 갈등」, 권오룡 엮음, 『이청준깊이 읽기』, 문학과지성사, 1999, 83쪽.

히 <퇴원>에서 시작된 신경증적 증상인 ‘배앓이’는 이청준의 초기 문학 세계 혹은 문학 세계 전체를 해석하는 중요한 모티프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퇴원>에서 시작된 ‘배앓이’의 모티프가 집중된 것이 이청준의 60년대 작품이라는 점으로 인해 지금까지 이청준 작품의 ‘배앓이’ 모티프의 연구는 60년대의 시대적 특성과의 관련 속에서 해석된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물론 60년대 문학에서의 욕망과 윤리의 문제를 단순한 이항대립으로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지금까지 60년대 문학의 특질들은 ‘빵과 자유’의 대립³⁾ 혹은 ‘낙오자 모티프’를 통해 드러나는 ‘속물에 대한 공포와 패배 전략에 대한 공포’의 문제로⁴⁾ 또는 ‘시민적 윤리와 대중적 욕망의 대립’의 의미로⁵⁾ 해석되어 왔다. 이러한 분석 틀 내에서 ‘배앓이’ 모티프⁶⁾를 해석할 때, 배앓이는 ‘빵’을 빼앗길 것에 대한 공포나 ‘허기’의 기억에 대한 불안 등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많으며, 실제로 많은 연구가 그러한 입장에서 진행되었다.

특히 이러한 연구의 동력이 된 것은 <퇴원> 이후에 이어졌던, <씌어지지 않는 자서전>이나 <조율사> 등에 나타나는 ‘단식’ 모티프에서 직접적으로 ‘허기’에 대한 불안감을 이야기해 줌으로써, 자연스럽게 이청준 소설의 ‘배앓이’는 ‘허기’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하게 되었다. 또 더 나아

2) 이 점에 관한 최초의 언급은 이재선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재선은 이청준의 비정상적 질병은 정신적인 이상성과 외상의 병적인 상태가 사회병리나 심리적인 불안의 표징으로서 본격화되고 있다고 보았다. (이재선, 『현대한국소설사 1945-1990』, 민음사, 1994, 208쪽.)

3) 권보드레, 「4.19와 5.16, 자유와 빵의 토프스」, 『상허학보』30집, 2010.10

4) 김건우, 「4.19세대 작가들의 초기 소설에 나타나는 ‘낙오자’ 모티프의 의미」, 『한국근대문학연구』16호, 2007

5) 조강석, 「1960년대 문학 텍스트에 나타난 시민적 윤리와 대중적 욕망의 교환」, 『현대문학의 연구』50집, 2013.6.

6) 배앓이가 중요하게 등장하는 작품으로는 <퇴원>, <조율사>, <씌어지지 않는 자서전>, <귀향 연습>이 가장 대표적이다.

가 <씩어지지 않는 자서전>이나 <조율사>에서 보여주는 단식의 윤리성을 통해 이청준의 작품 세계는 허기를 견디는 ‘금욕적 성격’으로 풀이되었다.

이청준 소설에 나타나는 ‘배앓이’의 의미를 고찰한 기존의 논의들⁷⁾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이청준 소설의 ‘배앓이’가 하나의 ‘증상’ 혹은 ‘징후’라는 점이다.⁸⁾ 이것은 생물학적이거나 물리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심리적 반응으로서의 질병이라는 것이며, 이것은 이청준의 작품을 읽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⁹⁾

이러한 징후로서의 ‘배앓이’에 대한 파악은 결국 소설의 주제론적 접근으로 이어지면서¹⁰⁾, 이청준의 다른 작품에서 언급되는 ‘허기’ ‘단식’ 등과의 연관성 속에서 분석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관성에서 기존의 이청준 소설에 나타나는 ‘배앓이’의 의미는 바로 작중인물이 드러내는 세계에 대한 부조리와 모순에 대한 신체의 민감한 반응이 중심이 되었다고 하겠다. 즉 개인적인 ‘징후’가 이청준의 전체 작품 세계와의 관련성 속에서 논의되면서 사회적인 것으로 확대 해석되었다고 볼 수 있다.

<퇴원>과 <조율사>, <씩어지지 않는 자서전>, <귀향연습>에서는 끊임없이 반복되지만, 원인을 알 수 없는 ‘배앓이’에 시달리는 인물이 등

7) 김국희, 「이청준 소설의 주체 인식 과정 연구-배앓이, 허기, 단식 증상을 중심으로-」, 명지대 석사논문, 2011.

김지혜, 「이청준 소설에 나타나는 징후적 ‘배앓이’와 타자의 시선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48집, 2010.9.

최영환, 「이청준 소설에 나타난 질병의 의미」, 연세대 석사논문, 2009.

권오룡, 「허기를 이겨내기 위한 단식」, 이청준 전집 완간기념 심포지엄 발제문, 2003.5.

8) 증상이 질병을 통해 드러나는 모든 형상, 질병이라고 부르는 것을 모아둔 것에 불과하다면, 징후는 표면적인 현상을 넘어서 신체 조직을 탐색하고 해부를 통해 ‘분명히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찾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미셸 푸코 『임상 의학의 탄생』, 홍성민 옮김, 이매진, 2006, 156-184 참고)

9) 권택영, 「증상으로 읽는 이청준 소설」,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42집, 2009.

10) 김지혜, 앞의 논문, 118쪽.

장한다. 여기에서 본 논의는 기존의 논의대로 이청준의 데뷔작 <퇴원>의 ‘배앓이’가 <씩어지지 않은 자서전>, <조울사>의 허기나 단식으로 이어졌을까 하는 의문으로 시작한다. 또한 ‘허기’와 ‘단식’의 모티프와 이어지지 않은 ‘배앓이’는 그 자체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하는 것이다.

일단 본 논의의 시작은 이청준의 ‘배앓이’는 허기의 배앓이만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퇴원>의 배앓이는 허기의 ‘배앓이’가 아니기 때문에 ‘단식’의 모티프로 이어지지 않으며, <퇴원>의 ‘배앓이’ 형태가 그대로 이어진 작품은 <귀향연습> 뿐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공교롭게도 이청준의 작품 중 ‘배앓이’가 시작된 작품이 <퇴원>이며, ‘배앓이’가 끝나는 작품이 <귀향연습>이다. 그리고 이 두 작품은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유사하다.

<퇴원>은 데뷔 작품일 뿐 아니라 이후 이청준의 전체 작품 세계를 반복하고 있는 상징과 구조가 집결되어 나타나고 있는 작품이라는 측면에서 <퇴원>의 해석은 이후 이청준 작품 세계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측도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또 <귀향연습>은 이청준의 초기 작품 세계를 마무리하는 지점이며 이후의 작품세계가 변화하는 첫 지점이 되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퇴원>, <귀향연습>에서 보여주는 ‘배앓이’의 의미를 통해 이청준의 전체 작품 세계를 다시 읽는 작업 또한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2. 은폐된 말과 ‘배앓이’-<퇴원>

이청준의 등단작 <퇴원>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다양하게 해석 되어 온 작품이다. 이 작품은 우선 그 인물과 행위의 모호함이라는 주제, 그리고 형식면에 있어서는 서사 구조의 중층성이라는 이청준적 특질을 고스

란히 보여 준다는 점에서 단순히 등단작이라는 의미 이상의 중요한 의의를 지니는 작품으로 평가 받는다.¹¹⁾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후 이청준 작품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배앓이’, ‘전깃불’ 모티프, 그리고 ‘병원’이라는 공간이 이 작품 속에 그대로 들어있다는 점에서도 많은 논의거리를 제공하는 작품이다.

<퇴원>에 대한 기존 논의는 허기와 금욕의 문제를 다룬 연구¹²⁾와 정신분석학적 접근¹³⁾을 통한 연구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들 연구의 핵심 주장을 다시 거칠게 분류하자면 ‘허기’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로 나눌 수 있다. ‘허기’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공존할 수 없는 개념으로, 결국 기존의 <퇴원> 연구는 많은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있기는 하지만 한 면만을 분석하는 연구가 될 수밖에 없었다.

재미있는 것은 전혀 다른 방법론인 두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인용한 부분이 모두 어린 시절의 삽화인 ‘광 이야기’라는 것이다.

소학교 3학년 때 가을. 나는 그 즈음 남몰래 즐기고 있는 한 가지 비

-
- 11) 권오룡, 「이카루스의 꿈」, 『이청준문학전집 1 병신과 머저리 해설』, 문학과 지성사, 2010, 340쪽.
- 12) 권보드래, 「4월의 문학혁명, 근대화론과의 대결: 이청준과 방영웅『산문시대』에서 『창작과 비평』까지」, 『한국문학연구』39집, 2010.
- 13) 이청준 소설의 많은 인물들이 신경증적 증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정신분석학적 논의는 많은 연구 결과를 축적해왔다.
최종배, 「이청준 연작소설 ‘남도사람’에 대한 정신역동적 고찰」, 서울대 석사논문, 1996.
최종배·소두영, 「이청준 초기 작품에 대한 정신분석적 고찰」, 『정신분석』제 7권 1호, 1996.
이승준, 「이청준소설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연구」, 고려대 박사논문, 2002.
이혜성, 「이청준 소설의 정신분석학적 연구:작중 인물이 유년시절 정신적 외상을 가진 작품을 중심으로」, 신라대 석사논문, 2002.
채대일, 「이청준 소설의 죄의식과 고백 양상 연구」, 서강대 석사논문, 2003.
나소정, 「현대소설에 나타난 심리적 적응행동에 관한 연구 -이청준, 오정희 소설의 중심으로」, 명지대 박사논문, 2007.

밀이 있었다. 광에 가득히 쌓아 올린 벚섬 사이에 내 몸이 들어가면 꼭 맞는 틈이 하나 나 있었다. 나는 거기다 몰래 어머니와 누이들의 속옷을 한 가지 두 가지씩 가져다 깔아 놓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그곳으로 기어 들어 생쥐처럼 낮잠을 자곤 했다. 속옷은 하나같이 부드럽고 기분 좋은 향수 냄새가 났다. 장에는 그런 옷이 얼마든지 쌓여 있어 내가 한두 가지씩 털어내도 어머니와 누이들은 알아내지를 못했다. 어두컴컴한 그 광 속 굴에 들어앉아 이것저것 부드러운 옷자락을 만지작거리며, 거기서 흘러나오는 냄새를 맡고 있노라면 그보다 더 기분 좋은 일이 없었다. 그러다 나는 스르르 잠이 들고, 잠이 깨면 다시 생쥐처럼 몰래 그곳을 빠져 나왔다. 그런데 어느 날은 거기서 너무 오래 잠이 들어 있다가 아버지가 비춘 전깃불 빛을 받고서야 눈을 떴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광을 나가더니 나를 남겨 둔 채 문에다 자물쇠를 채워 버렸다. 그 문은 이틀 뒷날 저녁 때 열렸다. 나는 광에다 나를 가두어 놓은 동안 밖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모른다. 그러나 문이 열렸을 때, 거기 있던 옷가지는 한 오라기도 성한 것이 없이 백 갈래 천 갈래로 찢기어 있었다.

-이들을 굶겨 봐도 배고픈 줄을 모르는 놈입니다. 저놈은.
-하지만 그런 말은 누구나 듣는 거지. (<퇴원>, 17-18쪽)¹⁴⁾

위의 인용에서 보는 것처럼 <퇴원>의 광 이야기는 충분히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의미로 읽어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 이때의 상황이 이후 ‘배앓이’와 어떠한 방식으로 연결되는가 하는 부분이 중요하며 그것이 바로 본고에서 논의할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광 사건’ 해석의 중심은 주인공인 ‘나’가 가지는 아버지와의 갈등이 어떤 심리적 뿌리를 두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다.¹⁵⁾ 철저하게 대립적 이미지로 되어 있는 이 장면에서 본능충동을 상징하는 ‘어머니와 누이의 속옷’과 금기를 상징하는 ‘아버지의 전깃불’의 대립에서 ‘나’는 어쩔 수

14) 『병신과 머저리』, 이청준전집 1, 문학과 지성사, 2010. 이하 인용은 이 책으로 하고 인용 페이지만 밝힌다.

15) 이승준, 앞의 논문, 38쪽에서는 김현, 김윤식, 이부영 등의 논의로 아버지와의 갈등이 이청준의 개인사적, 정신적 갈등의 중심임을 밝히고 있다.

없이 아버지에 의해 감금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거기 있던 옷가지는 한 오라기도 성한 것이 없이 백 갈래 천 갈래로 찢는’ 정도의 반항을 드러낸다. 물론 이러한 ‘나’의 반응은 아버지의 권위를 수용하지 않는 측면¹⁶⁾을 보임과 동시에 아버지에 의해 행해지려고 했던 거세 위협이 ‘불완전한 거세’로 끝나고 말았음을 보여준다.¹⁷⁾ 이러한 불완전한 거세는 ‘나’에게 심리적 외상을 남겼고, 이러한 심리적 외상이 이후에 신경증적 증상인 ‘배앓이’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¹⁸⁾

하지만 ‘나’의 배앓이가 발현된 시점이 실제의 아버지가 이미 ‘요령 없는 부정 관리로 붉은 벽돌집’에 가 있게 된 때이며, 더 이상 ‘나’에게 아버지의 권위를 행사할 수 없었던 시점이라는 것을 고려하게 되면 아버지에 의한 심리적 외상이 바로 ‘배앓이’로 발현되는 것에는 의문이 생긴다.

본고는 ‘나’의 심리적 외상에는 아버지에 의한 ‘불완전한 거세’외에도

-
- 16) 이 부분을 ‘나’가 아버지의 권위에 대해 조롱하는 효과를 만들어낸다고 해석되기도 하며, 이청준의 인물들의 금욕적 태도에서 보이는 마조히즘적 요소의 시초로 보기도 한다. 즉 아이인 ‘나’가 아버지의 권위에 굴복하며 잘못을 비는 대신 행하는 이 행위는 아버지에 대한 공격성의 한 측면이라는 것이다. (설혜경, 『이청준 소설에서의 금욕의 정체와 윤리성 문제-단식모티프를 중심으로』, 『국제어문』 66집, 2015.9, 350쪽.)
- 17) 권오룡, 앞의 논문, 353쪽. 이 논문에서 이야기하는 ‘불완전한 거세’와 본고는 그 입장이 다소 다르다. 권오룡은 이청준 소설의 중요한 의미소인 허기와 단식의 테마는 거세의 물리적 위협이 향유의 대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고 있다. 즉 물리적 거세의 극단은 죽음이며, 굶기기라는 처벌에는 이러한 극단적 단계까지가 내포되어 있는데, 어린 주인공은 굶어 죽음의 죽음 충동을 즐겼다는 것이다. 하지만 본고는 이 부분을 ‘죽음 충동’에 대한 한 향유로 보지 않고, 아버지가 행하려고 했던 아버지 질서에 대한 복종의 실패로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복종의 실패를 ‘불완전한 거세’로 보고 있다.
- 18) 이 점을 이승준은 어머니에 대한 본능충동과 억압적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아버지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소망이 교묘히 얽혀 그 갈등이 해결불능이기 때문에 신경증 증상 속에서 해결을 모색하고, 그 증상은 위장병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논의 역시 주인공의 신경증 증상에 대한 설명은 일면 타당하나 ‘배앓이’에 대한 설명은 충분치 못한 부분이 있다.

아버지 역할을 하던 친구 ‘준’¹⁹⁾에 의한 또 다른 ‘불완전한 거세’가 있었다고 본다. 동급생이면서 ‘나’의 가정교사였던 준에게 아버지는 ‘선생님’이라는 호칭으로 부르게 하고, 나는 그런 아버지의 말에 순응한다. 그리고 나는 준을 ‘그는 언제나 나보다 어른’인 친구로 여긴다.

준이 오고 한 달쯤 되던 어느 날 저녁상을 받은 자리에서였다.

“넌 우리 선생님에게 시집가도 좋을 거야”

대학교 2학년을 다니고 있던 누이에게 나는 문득 그렇게 지껄였다. 손가락을 가만히 놓고 방을 나간 준이 그날 밤중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다음 날 나는 학교로 가는 대신 금고에 손을 대어 꾸러미를 만들어가지고 준의 집을 찾아갔다.<퇴원>, 19쪽)

위 부분은 <퇴원>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부분임에도 <퇴원> 논의에서 간과하고 지나간 부분이다. 이 부분에서 가장 이상한 것은 ‘나’의 지껄임이 아니라 준의 행동이다. 대학교 2학년인 누이에게 내가 한 말인 ‘우리 선생님에게 시집가도 좋을거’라는 말 한마디가 가난한 입주 가정교사 준이 집을 나갈 만한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준의 행동 후에 나 또한 아버지의 금고에서 돈을 꺼내 집을 나간다는 극도의 반항을 표출한다.²⁰⁾ 그리고 그 돈의 절반을 준의 집에 가져다주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19) 친구 준이 아버지 역할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퇴원>의 해석 과정에서 많은 논자들에 의해 언급된 바 있다.(최종배와 소두영은 병원 내에서 준이 의사로서 아버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간호원인 미스 윤이 어머니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지적의 맥락에서 누이에게 한 이야기 역시 누이가 어머니를 의미한다는 맥락으로 파악했고, 이 역시 준이 아버지의 위치에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최종배, 소두영, 앞의 논문, 11쪽.)

이와는 달리 이승준은 아버지의 인정을 갈구하는 나와 경쟁 관계의 의미로 준을 파악하고, 나는 준에게서 열등감을 느끼는 존재로 해석했다. (이승준, 앞의 논문, 28쪽.)

20) 그 이전까지는 아버지의 모든 경멸을 견디고 있었던 ‘나’의 성격을 고려한다면 이 행동은 상당히 예외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사건은 아버지와 나의 관계 못지않게 중요한 나와 준의 관계를 해석할 수 있는 핵심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퇴원>에서 ‘준’이 차지하는 의미는 또 다른 아버지의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준은 아버지가 나에게 가한 최고의 경멸인 “이들을 굶겨봐도 배고픈 줄을 모르는 놈”이라는 평가에 대해 “하지만 그런 말은 누구나 듣는거지”라는 반응을 보이는 인물이다. 즉 ‘허기’나 ‘식욕’으로 아버지의 권위에 나를 복종시키며, 아버지 질서 속에 나를 가둘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인물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는 항상 나보다 어른이었다”라는 말로 ‘허기’로 나를 지배하려는 아버지에게서 벗어나 ‘준’의 세계로 편입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준과의 갈등이 일어난 것은 ‘년 우리 선생님에게 시집가도 좋을 거야’라는 한 마디 말이었다. 이 말은 누이와 준을 성적 결합이 가능한 존재로 묶어버리는 의미를 지닌다. 또한 이 말을 듣고 준이 집을 나가버린다는 것은 이미 누이와 준 사이의 성적 결합 관계를 내가 알고, 이 말을 했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그렇게 본다면 결국 ‘나’의 잘못은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말하지 말아야 할 것’에는 성적 욕망이 은폐되어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나’가 아버지의 금고에서 꺼낸 돈의 절반을 준의 집에 두고 온 것은 나의 잘못에 대한 죄값을 그런 방식으로 치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²¹⁾

이렇게 실제 아버지에서 전이된 ‘준’이라는 아버지의 세계는 ‘굶겨서’ 복종시키려는 세계와는 달리 은폐된 욕망을 절대 발설하지 말아야 하는

21) 이 부분에 관해 박은태는 ‘나’를 돈을 사용할 줄 모르는 존재로 보고 있다. 특히 돈을 아버지의 한 변형이라고 파악하면서 아버지가 소년의 욕망을 금지시키는 것은 아들을 돈을 벌 수 있는 존재로 만들기 위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욕망의 세계(어머니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나는 돈을 현실적으로 사용할 줄 모르는 존재이며, 아버지의 돈을 훔쳤지만 돈을 사용할 줄 모르기 때문에 준의 집에 준 것으로 해석한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지나치게 실제 아버지에 집착하여 나와 준에 대한 파악을 정확히 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박은태, 「<퇴원>에 나타난 내면과 자아 형성의 과정」, 『비평문학』16집, 2002.)

세계이다. 그리고 나는 이러한 세계에 아버지 금고의 돈을 훔쳐 줌으로써 복종을 표출했다고 할 수 있다. 즉 아버지의 세계에서 준의 세계로의 편입을 공고히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준이라는 변이된 아버지의 질서에서의 절대적인 권위는 바로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정확히 다시 말하면 ‘금기된 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알아둬. 위궤양이 발병할 조건은 첫째 정신적 긴장감, 둘째가 불규칙한 식생활, 셋째가 술이거든. 부정할 테지만 그런 점에서 자넨 영락없이 합격이야. 더욱이 공복 시에 통증이 오고 식사로 그 통증이 가신다면 의심할 여지가 없어. 잘 생각해서 하란 말야”

하고 못을 박았다. 나의 처지에다 일부러 연관을 시켰는지 준의 말은 그럴듯하기도 했다.

그런 뒤로 증세는 정말 완연해졌다. 무엇보다도 공복에 통증이 온다는 말이 끼니가 불규칙한 나에게 금방 공포로 변해버렸다. 끼니 생각만 하면 떨쩍하던 배가 때가 되기 전부터 쓰러오기 시작했다. 정작 한 끼라도 밥을 거르는 경우가 생기면 통증은 절망적일 정도로 심했다. 하루 종일 위를 채울 궁리만 해야 했다. 그래도 금방 통증이 오고, 위가 꽤어 들어가는 정도를 느낄 수 있을 만큼 발작이 심할 때가 있었다. (<퇴원>, 21쪽)

위 인용에서 알 수 있듯이 나의 ‘배앓이’의 심각한 시작은 준의 ‘말’에 의해 강화(지배)되고 있다. 하는 일마다 실패를 거듭하며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숫제 내 목구멍으로 먹어 삼키고나 말자’는 심정으로 술을 마셔댔던 ‘나’의 배앓이 증상은 ‘회충인가’ 할 정도의 약한 것이었다. 그러한 나의 증상이 준의 말로 인해, 다시 말해 준의 말의 권위에 의해 ‘끼니 생각만 하면 떨쩍하던 배가 때가 되기 전부터 쓰러오기 시작하는’ 신경증적 증상으로 변해버린다. 특히 이 증상은 ‘위가 꽤어 들어가는 정도를 느낄 만큼’ 생생하고 고통스럽다.

결국 나의 배앓이는 준의 말에 지배를 받으며 시작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나’는 준의 권유대로 준의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데, 준의 ‘병원’은 기존 논의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광’의 의미처럼 모성 공간이라는 의미에서의 회귀의 공간이기 보다는 ‘나’가 ‘그 곳밖에는 준에게서 멀리 가버릴 쉬운 곳이 없었다’는 이유로 군대행을 택할 만큼 준에게서 벗어나길 원했지만 결국 ‘준’의 곁으로 되돌아왔다는 점에서의 회귀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준의 병원에서 나의 ‘배앓이’는 실제로는 치유되는 듯이 보인다. 우선 심인성 질병인 배앓이의 가장 큰 원인인 ‘식사에 대한 공포’가 제거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준의 말에 의해 구체적 실체를 보인 배앓이는 준이 ‘술’을 주기까지 하지만 완치 판정의 말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완치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나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듯이 짐작되는 간호사 미스 윤에 의해 ‘나’는 ‘자아망실증’이라는 새로운 병명으로 불리게 된다. 미스 윤에 의해 명명된 ‘자아 망실증’의 증상은 ‘바늘이 없는 시계’처럼 자신의 상태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현재를 정확히 인지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하는 데 ‘나’에게는 나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는 것이다.

모든 요구는 언어가 허용될 수 있는 한계 이전의 것이었다.

판토마임...

그렇게도 나의 머리에 맴돌기만 하던 창문의 이미지가 문득 머리에 떠올랐다. 그렇게 안타까워했던 것은 어떤 경험의 회상이 아니라, 강한 이미지로 받아들여진 그 단어의 개념에 불과했다. 판토마임... ‘무언극’이라는 번역어로는 도시 실감이 나지 않는 말이다. 그것은 이 단어에 세 번이나 겹친 순음의 작용도 있겠지만, 마지막 ‘ㅁ’ 받침이 단어의 뜻과 더욱 잘 부합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았다. 받침 자체가 이미 그 내용이 지니는 무거운 침묵을 강요하고 있었다. 마지막 음절에서 자동적으로 입을 폐쇄당하고 나서, 나는 몇 번이고 이 단어의 이미지를 실감했고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그 연극의 본질에까지도 어떤 예감을 지니게 되었던

것이다. 언어가 완전히 소멸된 거기에는 슬프도록 강한 행동의 욕망과 향수만이 꿈틀거렸다. 허나 나에게는 이미 그 욕망마저도 죽어버리고 없었다. 완전한 자기 망각. 그렇게 나는 시체처럼 여기 병실에 누워 있는 것이다. (<퇴원>, 33-34쪽)

라캉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단계를 언어의 출현 과정과 연관해서 논 의한다. 유아적 자아는 오이디푸스 과정을 거치면서 언어의 상징 계로 진입함으로써 어머니에 대한 본능충동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법을 받아들이게 된다²²⁾는 것이다. 앞서도 지적한 바 있지만 ‘나’가 아버지의 법을 받아들이지 못한 두 번의 ‘불완전한 거세’ 경험은 모두 ‘말’과 관련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광 이야기’에서 아버지가 나에게 요구한 것은 ‘배고프다’는 ‘말’이었다. 하지만 나는 배고프다는 ‘말’ 대신 속옷을 모두 찢어 놓음으로써 아버지의 세계를 거부하게 된다. 나의 이러한 ‘배고프다’는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대해 준은 ‘그 말은 누구나 듣는 말’이라는 ‘말’로 나의 편이 되어 준다. 이러한 준과의 이별 역시 누이에게 한 ‘말’인 준에게 시집가도 좋겠다는 ‘말’ 때문이다. 결국 나의 무의식 속에는 ‘어머니의 속옷’, ‘시집가도 좋겠다’와 같은 본능적인 언어 즉 성적 욕망의 말은 금지된 말이며, 해서는 안 되는 말, 은폐된 언어가 되어 버리는 것이다. 이러한 언어의 은폐가 바로 나의 ‘이야기’ 없음의 현재 상태를 만들어 버린 것이다.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나의 신경증적 배앓이는 아버지에 의한 ‘불완전한 거세’ 뿐 아니라 아버지 역할을 한 준에 의한 ‘불완전한 거세’의 두 경험을 모두 포괄하고 있으며, 이 경험에서 공통적으로 억압된 것은 바로 ‘말’, 즉 성욕과 관련된 말이라고 할 수 있다. 나의 배앓이는 그러므로 성적인 언어의 억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은 퇴원의 마지막 부분인 실제 ‘퇴원’의 결정적 계기에서도 나타난다. 내가 찾은

22) 아니카 르메르, 『주체가 상징계로 진입할 때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하는 역할』, 『자크 라캉』, 이미션 역, 문예출판사, 1994, 130-150쪽.

‘나의 이야기’가 성적 욕망을 그대로 드러내는 ‘뱀잡이’의 이야기였다는 점과 그것을 미스 윤에게 이야기하였다는 것은 바로 나의 배앓이의 원인과 해결점이 모두 ‘성적인 말’이라는 점을 드러내준다고 할 수 있다.

뱀잡이 -

무심히 지껄이다가 나는 깜짝 놀라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다. 이야기가 하나 비수처럼 가슴을 후비고 들어왔다. 그렇지. 그 여자도 미스 윤도 나에게서는 틀림없이 귀한 이야기가 있으리라고 했었지

살모사. 이 놈에 대해서는 나도 이야기가 있다. 나는 거울을 내려놓고 문 쪽을 바라다보았다. 이야기가 생각났을 때 미스 윤이 냉큼 나타나주지 않는 것이 원망스러웠다. (<퇴원>, 27쪽)

증상들은 두 가지 서로 대립하는 층동들의 간섭 현상에서 비롯한 타협의 산물이며, 억압을 불러일으키는 데 함께 영향을 미친 억압하는 것과 억압당하는 것을 모두 대표한다. 대개 이것은 성적 만족과 성적 만족의 방어의 의도²³⁾라고 할 수 있는데, <퇴원>의 신경증 ‘배앓이’의 경우는 성적인 언어에 대한 방어 혹은 은폐가 그 원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기존의 <퇴원>에 대한 분석이 먹는 입과 연결된 ‘배앓이’, 즉 허기와 관련된 분석이었다면 본고는 <퇴원>의 두 층위를 함께 분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퇴원>에는 먹는 입과 관련된 위의 아픔, ‘배앓이’를 표층 구조로 하면서, 심층 구조인 ‘은폐된 말’ 즉 말하는 입과 관련된 ‘배앓이’의 구조가 숨겨져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말’과 관련되어 숨겨져 있던 이러한 심층구조는 이후 이칭준의 문학 세계의 가장 핵심적인 모티프인 ‘언어’로 자리 잡게 된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기존의 <퇴원> 연구에서 <퇴원> 이후에 반복되는 ‘전깃불’, ‘배앓이’, ‘병원’ 등의 모티프가 그 원형으로 등장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23) 프로이트, 『정신분석 강의』, 열린책들, 2003. 428쪽.

작품이라는 견해는 그 보다 더 중요한 ‘언어’에 대한 원형이 숨겨져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퇴원>의 숨겨진 언어가 ‘성적 욕망의 언어’라는 점에서 이후 이청준 작품의 금기된 언어, 혹은 금욕적인 문학과도 깊은 관련성을 가진다고도 볼 수 있다.

3. 거짓된 말과 ‘배앓이’- <귀향연습>

<귀향연습>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 이청준의 작품의 반복적 모티프 중 하나인 ‘귀향’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귀향연습>이 ‘귀향’ 모티프의 시작이라는 점 때문이다. 하지만 이 작품에서 ‘귀향’의 의미 못지 않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배앓이’이다. 하지만 이런 ‘배앓이’의 의미에 대한 논의는 이청준의 다른 작품과의 연계선상에서 논의될 뿐 크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귀향연습>에서 ‘배앓이’는 이청준의 그 어떤 작품보다 생생하게 그리고 중요하게 그려져 있다. 또한 <귀향연습> 이후 이청준의 작품에서는 ‘배앓이’가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귀향연습>은 이청준의 심인성 ‘배앓이’의 마지막 작품이며, 귀향을 모티프로 한 첫 작품이라 할 수 있다.²⁴⁾ 지금까지 이청준 작품의 ‘배앓이’를 ‘허기’와 관련시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귀향연습>의 ‘배앓이’ 역시 어린 시절 가난으로 인한 트라우마로서의 ‘배앓이’로 해석되었다.²⁵⁾

24) 70년 이후부터 귀향을 모티프로 한 작품을 창작한 이청준의 창작 경로를 “이청준의 서사 주체가 방향을 급선회하여 귀향을 연습하고 고향의 의미를 재구성”한 것으로 여기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 <귀향연습>은 이청준 소설에 있어서 귀향을 본격적인 주제로 삼은 첫 작품일 뿐 아니라 고향을 재구성하는 과정 자체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조소명, 「이청준 소설에 나타난 죄의식 연구」, 한양대 석사논문, 2016, 44쪽.)

25) 김국희, 앞의 논문, 12쪽.

<귀향연습>은 그 제목이 지시하는 바의 역할이나 작품의 제재가 ‘고향’에 관한 이야기라는 점을 통해, 또는 주인공인 지섭이 자신의 입으로 이야기하는 자신의 질환들이 고향을 떠난 이후에 생긴 것이라는 언급을 통해서 질환의 원인이 ‘실향’이라는 점이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각종 질병들 중 지섭을 가장 괴롭히는 증상인 ‘배앓이’는 실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고향에서부터 있어 왔던 질병이며, 그 시작은 ‘피병’에서부터였다는 것이 이 작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모든 증상 가운데에서도 가장 신경질 나고 견딜 수 없는 것은 역시 배앓이었다. 걸핏하면 뱃속이 찌부듯해 오면서 통증이 시작되었다. 외출을 하거나 차를 타려 하거나 언짢은 말을 듣거나, 어떤 식으로든 마음에 부담 가는 일이 생기기만 하면, 소위 사춘이 논 사는 거보고 배 아파진다는 식으로, 느닷없이 복통이 시작되곤 하였다. (중략) 치사스런 병이었다. 그리고 그것도 앞서도 말했듯이 내가 지금까지 겪어온 수많은 질병들이 가장 흉악한 병증으로 완성되어가고 있는 절망적인 증세였다. (<귀향연습>, 150쪽)²⁶⁾

주인공 지섭에 의해 ‘신경질 나고 견딜 수 없는 것’, ‘가장 흉측한 병증’, ‘치사스런 병’, ‘절망적인 증세’ 등으로 언급되는 이 배앓이의 특징은 증세만 있을 뿐 치료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현실적 배앓이의 시작이 ‘마음이 불안해짐’으로 시작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증상의 완화 역시 편안하게 자세를 잡고 기분을 가라앉히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것이다. 즉 심인성 질병의 증상이라고 볼 수 있다.

아니 사실을 말하자면 나의 배앓이는 정말로 피배하고 상관이 없는 것도 아니었다. 내 배앓이는 그 피배에 뿌리가 닿아 있는 것이었다. (중략) 어머니는 무엇보다 내가 몸이 아프다는 말에는 겁을 먹고 쉽사리

26) 『눈길』, 이청준문학전집 5, 열림원, 2000, 이하 인용은 이 책으로 하고 인용 페이지만 밝힌다.

곶이들었다. 잡부금을 못 준 대신 아픈 것은 여간 잘 위해 주지 않았다. 나는 잡부금이 밀린 날은 언제나 그런 식으로 학교를 쉬어버렸다.(중략) 눈물을 찢끔거리며 계속 배를 끌어안고 있으면, 동네 사람들이 나를 집까지 데려다주거나 어떻게 소식을 듣고 어머니가 달려 나와 허겁지겁 나를 업어 들여가곤 했다. 나는 그때까지 사람을 기다리며 좀 더 엄살을 떨고 있어야 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집으로 되돌아오고 나면 어머니는 전보다도 더 가슴이 아파했다. (<귀향연습>, 159-160쪽)

이렇게 나의 배앓이의 시작은 ‘피배’에서부터이다. 즉 거짓말로 배가 아프다고 한 것이 주위를 속이게 되고, 나 자신까지 속이게 되면서 진짜 배가 아픈 것으로 믿게 된 것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거짓된 말이 진실처럼 보이며, 이것을 실제적인 것으로 믿게 되는 이야기가 <귀향연습>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귀향연습>은 거짓말을 혹은 환상을 실제처럼 믿게 되는 (오인하는)²⁷⁾ 다섯 개의 이야기 층위가 존재한다. 그 첫 번째의 층위이자 최초의 층위가 바로 나의 어릴 적 ‘피배’의 이야기이다. 이 거짓말 속에는 감추고자 하는 두 가지 진실이 숨겨져 있다. 한 가지는 가난에 대한 나의 부끄러움이다. ‘잡부금’으로 상징화되는 ‘가난’에 대한 부끄러움을 회피하고자 하는 수단으로 나는 거짓 배앓이를 선택한 것이다.²⁸⁾ 다음으로 어머니에 대한 나의 감정이다. 난 ‘배앓이’라는 거짓말을 함으로써 어머니의 관심을 오롯이 받게 된다. 이청준 소설에 흔히 등장하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도 관련되어 있는 이 부분은 나의 배앓이가 어머니와의 결합(나를 업고 가는 동작)을 강렬하게 원한다는 진실이 숨겨져 있다.

27) 이 점에 관해서 지적은 ‘속지 않는 자가 길을 잃는다’는 라캉의 테제가 의미하는 바를 다시 숙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즉 이 테제는 주체가 오로지 오인을 통해 서만 타자를 점유함으로써만 자기를 구성할 수 있으며, 타자성에 사로잡히기를 거부할 경우 정신병적 망상으로 추락하고 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한다. (슬라보예 지젝, 『헤겔 레스토랑』, 조형준 역, 새물결, 2013, 198쪽.)

28) 기존 논의에서 <귀향연습>의 배앓이 역시 허기의 배앓이로 가난에 대한 부끄러움으로 해석하는 경우는 이 경우만을 고려한 분석이라 할 수 있다.

결국 나는 ‘거짓말’인 꾀배를 통해 가난에 대한 부끄러움을 회피하고 어머니와의 행복한 결합이라는 두 가지 성취를 맛보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성취가 허망한 거짓말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꾀배는 이후 실제의 배앓이가 되어 나를 괴롭히게 된다. 즉 거짓말에 대한 나의 죄의식의 발로가 배앓이로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청준의 배앓이의 시작이 거짓된 말이라는 ‘말’에 그 중심이 가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 층위는 지섭(나)이 훈에게 제공하는 나의 고향 이야기이다. 훈에게 고향을 배워주겠다는 약속을 한 지섭은 자신의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실제의 이야기가 아니라 ‘행복한 고향의 이미지를 주기 위해 자신 안에서 왜곡시켜 재현하는 거짓 이미지의 고향 이야기이다. “뜨거운 여름별 아래서 인분을 짓이기고 배가 고파 울다 지쳐서 잠이 드는 이야기, 그리고 사람이 죽어 묻혀 있는 무덤가에서 하루 동일 어머니를 기다리는 이야기”와 같이 ‘기분 나쁘고 무서운’ 기억들이 마치 행복스런 추억이었던 것처럼 왜곡되어 거짓된 말로 나타난다.

이 층위에서 보여주는 거짓말 속에서 실제로 감추려고 한 진실은 고향과 어머니 이미지를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어머니와의 행복한 결합이 있던 곳이 바로 동백골 내 고향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나’가 행복한 추억이라고 왜곡하여 훈에게 이야기한 그 기억 속에서 나는 언제나 어머니를 갈망하고 있지만 어머니는 나의 갈망을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²⁹⁾

즉 나는 어머니를 갈망하지만 결국은 어머니와 분리될 수밖에 없고, 어머니를 향한 나의 욕망은 언제나 불충분한 결합으로 끝나는 곳이 나

29) 이것은 고향에 관한 또 다른 행복한 에피소드인 ‘어머니와 동네 할머니의 이야기 소리를 듣다가 잠이 들었다는 행복한 추억 역시 어머니와의 충분한 결합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의 고향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진실을 감추고 마치 행복한 결합만이 있었던 듯이 이야기하는 것이 ‘나’가 훈에게 이야기하는 고향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며, 이것은 바로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거짓말 역시 거짓말을 하는 당사자인 지섭(나)이 그대로 믿음으로써 이 이야기를 하는 동안 실제로 자신의 오랜 배앓이 증세가 완화되기 시작한다. 훈이 역시 지섭의 이러한 거짓말을 믿음으로써 “조금씩 마루를 거닐어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마루를 내려가서 커다란 고무신을 끌고 앞마당을 돌아다닐”만큼 증세가 호전되어 간다. 하지만 이러한 증세의 완화 역시 ‘거짓’이 바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순간, 이 모든 증세의 완화는 본래 상태로 되돌아가고 만다.

세 번째 증위는 기태에 의해 제공된 과수원이라는 공간에 대한 거짓말이다. 기태는 자신의 과수원에 주인공 지섭과 조카인 훈, 그리고 훈을 돌봐주는 정은영 선생을 과수원의 손님으로 초대하여 별채에 머물게 한다. 기태의 목적은 이들에게 고향의 풍요로움을 제공하면서 이들의 병을 치료할 수 있게 해 준다는 것이다.

그가 정 선생까지 어떤 식의 환자로 단정한 것도 근거가 전혀 없는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그런 기태가 이상하게 편하지 않은 데가 있었다. 그는 자신도 의식할 수 없는 은밀한 방법으로 어떤 묘한 우월감 같은 것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마음으로 쉬 다른 사람들을 환자시켰고, 자신이 그들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며 후의를 베풀려 하고 있었다.(중략) 자기만은 환자가 아니라 자신만만할 수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증상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누구보다 난처한 환자가 아닐 수 없었다. 배앓이가 시작되려고 한 것은 아마 그런 느낌 때문이었던 게 분명했다. (<귀향 연습>, 172-173쪽)

위와 같이 지섭이 파악하는 기태의 처지나 성격이 기태 자신이 이야기하는 그것과는 서로 모순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기태는 마을 사람들

이 자신을 ‘과수원선생님’으로 부르며, 자신의 집에 대해 가지는 좋은 평판과 함께 과수원 선생님 집에 묵는 환자들 역시 ‘신비스러운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는다. 즉 기대는 자신의 과수원과 자신의 행위에 대해 왜곡되고 과장된 말을 하고 있으며, 이것이 진실이라고 믿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자신이 믿고 있는 이 진실을 폭력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관철시키고자 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아이러니하게도 <귀향연습>의 인물들 중 기대가 가장 심각한 증상을 가진 ‘환자’라고 할 수 있다.

자신들도 모른 채 도회지 같은 데서 품고 온 그 병적인 환상이나 현학 취미 같은 것으로 공연히 바다를 병들게 하고 오염시킬 뿐이지. 바다는 그냥 여기 있어. 자 보게. 저렇게 의젓하게 저기 있지 않나. 그 바다가 도대체 어쨌다는 건가. 과장을 해서는 안돼. 그 여잔 병이 들었어. 순박한 인심이니 맑은 공기니 비롯처럼 되어 있는 그 여자의 말도 모두 그런 식이야. 그녀가 알 턱이 있어? 진짜 순박한 시골 인심을 말야. 진짜로 맑은 공기, 진짜로 시원한 바람을 말야. 어렵도 없는 자기 과장이지. 병을 고쳐줘야 한단 말야 내 말은.(〈귀향 연습〉, 198쪽)

정은영의 병을 고쳐 준다는 핑계로 그녀를 강간한 기대의 행동은 실제로는 자신의 우월한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바다에 대한 그녀의 환상을 병적인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하고자 했던 것이다.³⁰⁾ 그런 점에서 기대의 이 행동은 병을 고쳐준다는 거짓된 생각을 스스로 믿고 실천한 비열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네 번째 층위는 정은영 선생이 학교 때 들었던 바다에 대한 이야기이다. 정은영을 특징짓는 ‘현장부재의 눈빛’의 연유는 바로 그녀가 가진 바다에 대한 병적인 집착에 의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집착이 생긴 연유

30) 이 점은 폭력성에 대한 논리에서 “공격당한 사람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스스로를 열등한 존재로 지각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조소명, 앞의 논문. 52쪽 재인용)

는 그녀가 중학교 때 사귀던 남해에서 유학 온 소년의 이야기가 그 원인이 된 것이다. 정은영은 바다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 소년에게 소년의 고향인 바다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듣게 되고, 소년에게 언젠가 그 소년의 고향 바다를 구경시켜달라고 요구한다.

은영에게 바다를 데려가주지 못한 대신 은영이 그 바다를 더욱 확실하게 그려볼 수 있도록 해 주려는 것처럼, 또는 그 바다의 환상에 취해 꿈을 꾸듯 몽롱해진 은영의 눈길에서 떠나온 고향 바다라도 찾아내려는 듯, 그녀의 눈길을 들여다보며 열심히 바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귀향 연습>, 194쪽)

이렇게 소년은 은영에게 바다에 대한 거짓 환상을 심어주고, 실제 그 바다로 데려가 달라는 은영의 요구가 계속되자 돌연히 그녀를 떠나버린다. 소년은 자신의 거짓된 말이 은영에게 가서 실제 모습처럼 완성되어 가는 전이의 과정을 즐겼다고 할 수 있다. 즉 소년은 자신의 거짓을 진실이라고 믿게 되는 중간 매개로 자신의 거짓에 취해 있는 은영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리고 소년에게 가장 두려운 순간은 은영이 진실과 마주치는 현장, 은영이 더 이상 자신의 말을 믿지 않게 되었을 때이다. 다시 말해 자신조차 자신이 만든 환상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거짓을 거짓이라고 인정해야 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다.

거짓말의 다섯 번째 층위는 은영이 사귀던 그 소년이 돌연히 떠난 후 보내온 소설 속 이야기이다. 이 소설은 결핵을 앓는 청년과 간호사의 낭만적인 사랑 이야기이다. 소설에서 결핵 환자 청년은 간호사에게서 ‘옛날에 자신을 떠난 여자’를 느끼고자 수평선을 바라보도록 하고 간호사는 ‘청년이 원하고 있는 눈길이 되어 보려고’ 애쓴다. 마침내 간호사의 눈길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발견해 낸 청년은 차츰 결핵이 낫기 시작하여 마침내 완치되고는 ‘문득’ 결핵 요양원을 떠나 버린다. ‘그에게서 배우고 그에게서 익힌 그 여인의 눈빛을, 이제는 스스로도 어쩔 수 없이 꿈꾸듯

수평선을 바라보게 되곤 하는 그녀의 먼 시선을 남겨둔 채' 말이다.

이 이야기 속 최초의 거짓말은 결핵 청년이 자신을 사랑한 간호사에게 했던 수평선에 무엇인가 있다고 그것을 바라보라는 것이다. 물론 이 말 자체가 거짓말이란 걸 간호사는 인지한다. 간호사가 이 거짓말에 속아 주는 척 한 것은 자신의 눈빛을 통해 청년의 병이 회복되어 가는 것을 원했기 때문이다. 이 소설이 앞서 정은영의 이야기와 흡사한 것은 청년의 '문득 떠남'이 자신이 했던 거짓말의 의도를 간호사가 알게 되는 진실의 순간이 두려워서라는 점이다.

이렇게 <귀향연습>에 존재하는 다섯 가지 층위들에서 공통된 것은 그럴 의도는 없었지만 점점 이야기를 해 갈수록 거짓(혹은 환상)에 빠져 간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이야기의 거짓을 자신이 그대로 믿어버림으로써 거짓에서 벗어나올 방법을 모른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다섯 층위 중 주인공 지섭이 연관된 층위는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두 층위만 해당된다. 지섭이 연관된 두 층위 외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층위에서는 자신이 했던 이야기가 거짓임을 자신이 깨닫게 되었을 때, 거짓을 말하던 당사자가 '돌연히', '문득' 사라져 버림으로써 자신이 한 거짓을 거짓인 상태로 남겨 둔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것은 거짓말을 거짓인 상태로 남겨둠으로써 그 이야기가 '환상'으로 남게 하는 효과를 준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정직한 방법이 아니며, 책임 회피의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지섭이 연관된 첫 번째, 두 번째 층위의 거짓에서 자신이 지금 믿고 있는 환상이 거짓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지하고 그러한 거짓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인물들은 거짓과는 상대적인(심리적 측면에서) '생생한 어떤 것'을 요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귀향 연습>의 핵심 모티프인 '배앓이'이다. 이때 배앓이는 가장 생생한 고통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자신이 했던 거짓말에 대한 심리적 죄값음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지섭이 자신의 거짓된 말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계기는 정은영의 바다에 대한 거짓된 환상을 깨 준다는 구실로, ‘그녀의 처녀를 빼앗고’도 “그녀가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정직해질 수 있도록 해주고 싶었을 뿐”이라는 더 큰 거짓말을 하는 기태의 태도와 ‘지금까지 한 고향의 이야기가 정말이었느냐?’는 훈의 추궁이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좋아요. 그 이야기가 다 진짜래도 좋아요. 하지만 아저씨 그럼 어째서 그렇게 좋은 고향 동네를 한 번도 찾아갈 생각을 하지 않으세요? 여기까지 와 계시면서 고향 동네가 멀지도 않으시다면서 말예요”

이번에도 나는 녀석의 추궁에 스스로 납득할 만한 대답을 마련할 수 없었다. 나는 두려움이 앞서고 있었다. 훈이 높이 두려웠다. 나의 고향 마을 동백골이 두려웠다. 그리고 내 모든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를 끝없이 지껍여온 나 자신이,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제 다시 새삼스럽게 생각하기가 두려웠다. (중략) 이날 밤 나는 다시 진짜 배앓이가 시작되고 말았다. 과수원을 찾아오고 나서 첫 번째로 기태와 술을 마셨던 날 밤 한 번 밖엔 배앓이다운 배앓이가 없었는데, 이날 밤은 증세가 진짜로 심했다. 자리로 눕거나 화장실로 달려가 자세를 잡고 앉아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어렵도 없을 만큼 기세가 사나웠다. (<귀향 연습>, 218-219쪽)

여기에서의 배앓이는 앞서의 배앓이와는 그 의미가 다소 차이가 난다. 앞서의 동백골에서의 배앓이는 거짓 ‘피배’의 바탕을 둔 배앓이였고, 이후 고향을 떠나 도시에서 살아왔던 배앓이 역시 피배에 바탕을 둔 심인성 배앓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거짓인 상태를 그대로 둔 것에 대한 죄책감에서의 배앓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훈의 추궁 이후 지섭이 겪은 배앓이는 회피하고 싶었던(두려웠던) 진실과 마주하고 난 이후의 배앓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자신이 한 거짓에 자신도 속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난 이후의 배앓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배앓이 이후 지섭의 태도는 이전의 태도와는 판이하게 달라진다.

악마구리 속이라도 할 수 없지. 나를 그토록 폐허로 만든 곳이 서울 이라면 내 병도 아마 그 서울 쪽에 뿌리가 있을 테니까. 뿌리를 뽑고 싶으면 싫더라도 그 뿌리가 내려진 곳으로 돌아가는 게 정직한 태돌 테구 (<귀향 연습>, 221면)

하지만 뭐 서울에 무슨 새삼스런 기대가 있어선 물론 아니야. 그게 이틀테면 유일하게 정직한 나의 삶이라는 것이겠고, 서울은 실상 그런 내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삶의 터전인 셈이니까 (중략) 이런 식으로는 어렵도 없는 일이야. 난 단념했어. 그리고 이제부터 그런 걸 불편스럽게 여기거나 부끄러워하지도 않을 것 같애, 나에겐 그 밖에 남은 게 없거든. 어떻게 보면 나는 그 많은 증세들 때문에, 그것을 건강삼아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같기도 하구. 고칠 수도 없고 굳이 고치려고 하지도 않겠어. 마음에 들진 않지만 이게 살아 있는 내 진짜 얼굴이거든. 그렇다면 난 다시 서울을 찾아 들어가는 것이 새삼스럽게 두려워질 일도 아니겠고 (<귀향 연습>, 222-223면)

이와 같이 지섭은 지금까지 정직하게 맞서지 못했던 자신의 불안을 부끄러움 없이 ‘정직’하게 맞서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본고의 이러한 입장은 기존 논의에서 이청준이 고향의 부재를 은폐하고 방어하려고 한다거나 ‘고향을 이상화하려는 시도와는 거리를 두지만 허구로 고향을 보존하려는’³¹⁾ 태도라는 입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귀향연습>의 배앓이를 통해 이청준은 더 이상 은폐하거나 왜곡된 말로 자신의 불안을 드러내지 않겠다는 의지를 제시했다. 이 작품은 ‘거짓말을 하면 배가 아프다’는 소박한 윤리를 실천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는가를 보여준다. 그리고 그 가장 큰 희생인 거짓을 깨기 위한 징벌적 행위로 이루어진 기태에 의한 성폭행은 그 방법 자체도 비윤

31) 조소명은 이청준이 <귀향연습> 이후의 작품에서 고향을 이상화하려는 시도와 일정한 거리를 두지만 허구로 존재하는 고향이 근대적 주체에게 정신적 준거를 제공한다는 사실 역시 인지하고 있는 이청준은 그 허구가 보존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고향을 원죄의식이 보존되어 있는 공간으로 재구성함으로써 근대적 주체가 결여하고 있는 정신적 준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보았다.

리적이란 점 뿐 아니라 ‘거짓’에서 야기될 수 있는 폭력의 잠재성까지 보여줌으로써 이후 이청준 작품과도 연관된다고 볼 수 있다.³²⁾

<귀향 연습>은 실제 귀향을 위한 연습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 자체가 거짓 귀향을 보여주며, 이러한 거짓이 바로 배앓이를 유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배앓이를 심인성 배앓이가 아니라 실제의 배앓이로 인정함으로써 이청준의 이후 작품에서 ‘고향’에 대한 탐색, 혹은 어머니에 대한 탐구는 진실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작품에서 나의 거짓 고향에 대해 추궁한 훈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 이유가 없이 뼈가 부서진다는 점은 내 몸의 중심인 배가 아프다는 상징과 같이 ‘거짓’으로 이루어진 것들은 결국 그 중심이 무너진다는 상징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귀향연습>이 이청준의 전체 작품에서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후 이청준이 가진 윤리적 언어에 대한 병적일 정도의 정직성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작품이라는 점 때문이다.

그리고 본고에서 다섯 가지 층위로 나누어 제시한 <귀향연습>의 공통점이자 핵심이 ‘거짓된 말’이라는 점은 <귀향연습>의 배앓이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거짓된 말에 대한 죄책감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앞서 <퇴원>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이청준의 전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말’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정확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4. 나가며

이상에서 본 논의는 이청준의 <퇴원>과 <귀향연습>의 두 작품을 대상으로 이청준이 ‘배앓이’라는 모티프를 통해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였

32) 넓은 의미에서 <소문의 벽>, <당신들의 천국> 등에 이어지는 감시와 억압과 불안 등을 의미한다.

는가를 살펴보았다. 본 논의의 중심은 물론 ‘배앓이’의 의미 파악이다. 하지만 이 두 작품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 두 작품은 상당히 유사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³³⁾

먼저 두 작품의 배경이 되는 <퇴원>의 ‘준’의 병원과 <귀향연습>의 기태의 과수원은 그 장소가 가진 의미에서 유사하다. 주인공이 ‘배앓이’를 치유하기 위한 목적에서 머물게 되었다는 점과 그 장소에서 일시적으로 배앓이가 치유되는 듯 보였다는 점, 자신의 배앓이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성찰할 수 있게 해 준 장소라는 측면에서 유사한 장소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준’과 ‘기태’라는 인물이다. 이 인물은 주인공인 나에게 호의를 베푸는 점에서 유사하다. 또한 두 인물은 주인공을 어릴 때부터 알고 있는 인물이라는 점, 그리고 ‘배앓이’의 유래를 자신의 짐작대로 판단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성격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두 인물은 자신 외의 다른 인물을 환자라고 생각하는 점에서도 유사하며, 무엇보다도 자신의 생각이나 질서가 일반적이고 중심적인 질서라고 여기는 면에서 유사한 성격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주인공의 이야기를 들어 주는 존재인 ‘미스 윤’과 ‘훈’의 성격이다. 이 인물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잊었거나 왜곡하려는 주인공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요구하는 성격이다. 그리고 이 인물들은 결국 주인공에게 정확한 배앓이의 의미를 깨닫도록 도와주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유사한 성격을 지녔다.

또한 <퇴원>, <귀향연습> 두 작품 모두 ‘어머니’에 대한 고착에서 벗어나지 못한 신경증적 증상을 보인다는 점에서도 유사하다. 앞서 두 작품의 분석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두 작품의 주인공들은 어린 시절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극복하는 단계에서 ‘불완전한 거세’를 경험(<퇴

33) 물론 이청준 작품의 특징으로 중층구조, 격자구조, 탐색담, 추리소설의 구조 등 유사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분석이 많기는 하지만 이 두 작품은 인물이 차지하는 역할의 공통점까지 많은 부분에서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원>의 경우)하였거나 ‘어머니’와의 결합이 결핍된(<귀향연습>) 주체들이다. 이러한 주체가 가진 신경증적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본 논의의 중심인 ‘배앓이’ 증상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두 작품은 공통적으로 라깁의 용어로 말하자면 어머니와의 상상계적 결합을 원하는 유아기에 고착된 주체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다.

본 논의는 지금까지 이청준의 소설에 나타나는 ‘배앓이’의 의미를 ‘허기’의 배앓이로 파악한 것에 대한 전적인 재고가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시작된 것이다. 이청준 작품의 ‘배앓이’를 허기나 가난의 배앓이로만 파악할 수는 없다는 것이며, 그런 점에서 <퇴원>, <귀향연습>의 배앓이는 허기를 견디는 단식의 배앓이와는 전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기존의 이청준 논의에서 같은 부류로 묶어졌던 <퇴원>, <조울사>, <씌어지지 않는 자서전>, <귀향연습>은 본고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퇴원>, <귀향연습>에서의 배앓이와 <조울사>, <씌어지지 않는 자서전>에서의 단식은 다른 측면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³⁴⁾

<퇴원>은 이청준 작품에서 배앓이가 가장 먼저 등장한 작품이며, <귀향연습>은 배앓이가 가장 마지막으로 등장한 작품이다. 그리고 본 논의의 중심인 이 두 작품에서 배앓이의 원인이 되고 배앓이의 숨은 의미가 되는 것은 바로 은폐된 말, 거짓된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은 이청준의 작품 세계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말’, 그것도 정직하고 진실된 말에 대한 탐구를 지속하였다는 특성에도 연관된다고 볼 수 있다. 즉 본고의 논의를 통해 이청준 작품의 최초 원형인 <퇴원>, 작품 세계의 변화를 최초로 보여 준 <귀향연습>에서 일관되게 추구해 온 가치는 바로 ‘정직한 말’이라는 것이다. 이 점이 바로 이청준의 전체 작품 세계를 설명할 수 있는 핵심어가 될 것이며, 본고에서 논의한 ‘배앓이’의 근본적인 의미가 되는 것이다.

34) <조울사>, <씌어지지 않는 자서전>에서의 배앓이의 의미에서는 여전히 허기의 배앓이의 의미가 유의미하며, 이 점에 관해서는 후고를 기약한다.

참고문헌

(기본 텍스트)

- <퇴원>, 『병신과 머저리』, 이청준전집 1, 문학과 지성사, 2010.
<귀향연습>, 『눈길』, 이청준문학전집 5, 열림원, 2000.

(참고문헌)

- 강운석, 「60년대 소설연구(2)-이청준론」, 『승실어문』15집, 1999, 471-485쪽.
- 권보드레, 「4월의 문학혁명, 근대화론과의 대결: 이청준과 방영웅 『산문시대』에서 『창작과 비평까지』」, 『한국문학연구』39집, 2010, 269-312쪽.
- 권보드레, 「4.19와 5.16, 자유와 빵의 토프스」, 『상허학보』30집, 2010.10, 85-134쪽.
- 권오룡, 「이카루스의 꿈」, 『이청준문학전집 1 병신과 머저리 해설』, 문학과 지성사, 2010.
- 권오룡, 「허기를 이겨내기 위한 단식」, 이청준 전집 완간기념 심포지엄 발제문, 2003.5.
- 권택영, 「증상으로 읽는 이청준 소설」,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42집, 2009, 279-300쪽.
- 김건우, 「4.19세대 작가들의 초기 소설에 나타나는 ‘낙오자 모티프’의 의미」, 『한국근대문학연구』16호, 2007, 167-193쪽.
- 김국희, 「이청준 소설의 주체 인식 과정 연구 - 배앓이, 허기, 단식 증상을 중심으로」, 명지대 석사학위 논문, 2011.
- 김석, 「쾌락자아와 현실자아 -역동적 무의식의 두 원천」, 『철학과현상학연구』57집, 2013.6, 27-54쪽.

- 김영찬, 「불안한 주체와 근대」, 『상허학보』12집, 2004, 39-65쪽.
- 김지혜, 「이청준 소설에 나타난 징후적 ‘배앓이’와 타자의 시선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48집, 2010.9. 117-135쪽.
- 김지혜, 「최인훈, 김승옥, 이청준 소설의 몸 인식과 서사 구조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2010.
- 김치수, 「언어와 현실의 갈등」, 권오룡 엮음, 『이청준 깊이 읽기』, 문학과지성사, 1999. 77-98쪽.
- 김효은, 「증상으로서의 죄와 주체의 형식-이청준의 눈길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45집, 2015.4. 355-383쪽.
- 나소정, 「현대소설에 나타난 심리적 적응행동에 관한 연구 -이청준, 오정희 소설의 중심으로」, 명지대 박사논문, 2007.
- 노대원, 「‘마음의 신체화’ 양상에 관한 인지·서사학적 연구 -1960~70년대 질병-치유 서사 분석을 중심으로-」, 서강대 박사학위논문, 2014.
- 문으뜸, 「이청준 소설에 드러나는 ‘반복’연구」, 『인문학연구』 48집, 조선대인문학연구소, 2014, 87-109쪽.
- 박성애, 「이청준 초기소설에 드러나는 윤리 구현 방식-『쓰여지지 않은 자서전』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19집, 2015.12. 163-182쪽.
- 박은태, 「〈퇴원〉에 나타난 내면과 자아 형성의 과정」, 『비평문학』16집, 2002, 99-116쪽.
- 설혜경, 「이청준 소설에서의 금욕의 정체와 윤리성 문제-단식모티프를 중심으로」, 『국제어문』66집, 2015.9, 333-362쪽.
- 이경욱, 「이청준 소설의 인물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2001.
- 이승준, 「이청준 소설에 대한 정신분석적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 논문, 2002.
- 이재선, 『현대한국소설사 1945-1990』, 민음사, 1994.

- 이현석, 「이청준 소설에 나타나는 성적 모티프의 담론화 방식 연구」, 『현대소설연구』38집, 2008. 293-319쪽.
- 이현석, 「이청준소설의 주제화에 있어서 윤리성의 문제」, 『한국현대문학회』24집, 2008, 469-496쪽.
- 이혜성, 「이청준 소설의 정신분석적 연구: 작중 인물이 유년시절 정신적 외상을 가진 작품을 중심으로」, 신라대 석사학위논문, 2002.
- 이효정,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서 불안 이론 연구」, 동의대 석사학위논문, 2016.
- 조강석, 「1960년대 문학 텍스트에 나타난 시민적 윤리와 대중적 욕망의 교환」, 『현대문학의연구』50집, 2013, 7-37쪽.
- 조소명, 「이청준 소설에 나타난 죄의식 연구」, 한양대 석사학위논문, 2016.
- 채대일, 「이청준 소설의 죄의식과 고백 양상 연구」, 서강대 석사학위논문, 2003.
- 최영환, 「이청준 소설에 나타난 질병의 의미」,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2009.
- 최종배, 「이청준 연작소설 ‘남도사람’에 대한 정신역동적 고찰」, 서울대 석사논문, 1996.
- 최종배·소두영, 「이청준 초기 작품에 대한 정신분석적 고찰」, 『정신분석』제7권 1호, 1996.
- 한순미, 「질문으로서의 금기와 헤테로토피아-이청준의 소설론에 대하여」, 『현대문학이론연구』61집, 2015, 459-480쪽.

(국외)

- 미셸 푸코, 『임상의학의 탄생』, 홍성민 옮김, 이매진, 2006.
- 슬라보예 지젝, 『헤겔 레스토랑』, 조형준 역, 새물결, 2013.
- 아니카 르메르, 『자크 라캉』, 이미선 역, 문예출판사, 1994.
- 프로이트, 『정신분석 강의』, 열린책들, 2003.

<Abstract>

The Meaning of the Stomach Troubles in the Novels of Lee Chung-Joon

Kim, Eun-Jung

The advanced researches regarded the *stomach trouble*(배앓이) in the novels of Lee Chung-joon as the meaning of hunger. I began to study this theme because I couldn't agree with the above opinions. I think that stomach troubles, the important motif of *Discharge*(퇴원), *Practice of Coming Home*(귀향 연습) of the author Lee does not represent the trauma of hunger.

Discharge(퇴원) is the first work and *Practice of Coming Home*(귀향 연습) is the last work in which *stomach trouble* appears. The cause and hidden sense of stomach trouble is *hidden language* in *Discharge*, and is *dishonest language* in *Practice of Coming Home*. Then, the *languages* are connected with sexual desire, so the two works can be related to Oedipus complex.

This thesis investigated the fact that psychogenic stomach trouble occurred as the type of *guilty conscience*, when the characters are placed in a situation to hide truth or tell lie. So, we can realize that the value being pursued constantly by Lee Chung-joon is *honest language*, and stomach trouble is its representation.

Key Words : stomach trouble, hidden language, dishonest language, Oedipus complex, guilty conscience, desire of oral

phase, psychogenic disease.

■ 논문접수 : 2016년 10월 31일
■ 심사완료 : 2016년 12월 9일
■ 게재확정 : 2016년 12월 21일

K C I